

세계 결핵의 날을 맞으며

편집부

세계 결핵의 날의 유래

1882년 3월 24일은 독일의 세균학자 로버트 코흐(R. Koch)가 당시 만연하던 여러 질병 중 가장 많은 인명을 앓아간 결핵의 원인균을 발견한 인류 의과학 사상 역사적인 날로 결핵퇴치의 길을 열어준 날이다.

따라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전세계 민간 항결핵단체들이 가입되어 있는 국제 항결핵 및 폐질환연맹은 결핵균 발견 100주년이 되는 1982년, 3월 24일을 “세계 결핵의 날(Universal Tuberculosis Day)”로 제정 공포하였다.

로버트 코흐가 결핵의 원인균을 발표할 당시만 하더라도 결핵은 유럽인 7명 중 1명이 결핵으로 사망하였고 영아 사망원인의 1/3을 차지하였다고 한다.

복십자의 유래



세계 결핵예방운동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는 복십자(The Red Double-Barred Cross) 마크는 1902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결핵학회에서 프랑스의 셸시롱박사가 이 표식을 국제결핵예방운동의 상징으로 제창하면서 채택된 것이다.

처음 이 마크는 9세기경 어느 기독교 교파의 상징으로 쓰였는데 그 후 11세기 십자군의 지휘자 로레인 공작이 이 복십자를 방패의 문장으로 삼아 싸워 이긴 일이 계기가 되어 영광스러운 평화와 희망을 상징하는 표식으로 알려져 있다.

특히 이 복십자는 붉은 색을 원칙으로 하여 크리스마스 썬은 물론 결핵협회의 기(旗)나 광플랫, 결핵검진차, 기타 결핵퇴치사업을 위한 출판물 등과 결핵예방운동의 상징으로 쓰이고 있다.